**저와 한국 음식**

이름: 민가워

일자: 2025년 06월 01일

**돼지국밥**

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처음 먹은 한국음식이 돼치국밥이에요. 그 때는 이 음식이 맛있어서 좋아하게 됐었어요. 하지만 3개월 동안 후에 이 음식이 다시 먹어 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때는 저는 비플페이앱이 없어서 혼자 먹으러 가지 못 해요.

처음 돼지국밥 먹어 봤 이유는 속드리 대리님 저를 가져 하기 대문내요.

다음에 비플페이앱이 있게 됐어서 돼지국밥집에 돼지국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 때는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지금도 이 음식이 아직 좋아해요.

오랫전에 돼지국밥만 알았는데 지금은 내장국밥, 순대국밥, 섞어국밥을 알았어요. 고기를 많이 안먹을 면 섞어국밥을 사키먹었어요.

**김치찌개**

사실 우리 팀원은 점심을 항상 같이 먹어요. 처음에 김치찌개를 먹을 때 제 생각은 이 음식이 저에게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팀원이 김치찌개집에 자주 가기 시작하게 됐었는데 제가 이 음식을 싫게 됐었어요. 그래도 저는 아직 김치찌개집에 팀원이랑 같이 게숙 가요.

다음에 김치찌개집에 벌서 안가게 됐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오랫동안 김치찌개를 안 먹기 대문내 저는 이 음식을 아주 먹고 싶게 됐었는데요. 이제 저의 팀원이 김치찌개집에 안가도 제가 다른 팀원와 같이 먹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김치찌개가 정말 좋아요. 저는 가끔 일주일에 2, 3번 김치찌개를 먹어요. 지금도 저는 이음식이 아직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김치찌개를 만들을 배우고 싶어요. 언젠가는 이 음식을 혼자 만들 거예요. 그리고 캄보디아에 돌아가면 우리 가족에게 이 음식을 만들 주고 싶어요. 김치찌개가 캄보디아 음식이 비슷해서 저의 가족이 이 음식을 먹으수 있것 같아요.

**비빔밥**

저는 비빔밥을 가장 좋아해요. 비빔밥은 맛있어요. 점심으로 회사근처에 비빔밥집에서 비빔밥을 자주 가서 먹어요. 저뿐만 아니라 비빔밥을 좋아했는데 우리 팀중에 전부다 이 음식을 더 좋아하는 한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생선집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생선을 안 좋아하기 때문 내요. 그래서 생선집에 이사람을 부르 때는 언제나 “아…. 싫어요. 혼자 가세요”이라고 해요. ㅋㅋㅋ

**한국 생선**

한국에 한달 오기 호에 처음으로 생선회를 먹어봤어요. 사실 저는 회를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생선회 먹을 때 맛 있지 몰랐어요. 그냥 먹어요. 하지만 생선을 먹은 후에 저의 배가 아프게 됐었어요. 그 때는 정말 오래 아파요. 저도 왜 그런지 몰랐어요. 2주 후에 저는 병이 나았어요.

하지만 아플 때는 많이 먹지 않아요. 슬펐어요. 그래도 병에서 회복한 후에 살이 빠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식사를 많이 하게 돼서 다시 살이 쪘어요. ㅠㅠ

생선회를 못먹는데 생선 구이를 먹을 수 있고 정말 좋아해요. 우리 회사 근처에 생선집이 있거든요. 부산에 이사님이 오시을 때는 우리 팀원이 그식당에 자주 가요. 이식당에 가면 고등어 구이, 고등어 침을 사키 먹어요. 다 맛있어요. 가끔은 공기밥 하나 더 달라고 해요.

저는 부산에 생선을 먹어봐는 대 제주도에도 생선을 먹어봐거든요. 근데 생선구이만 먹었어요. 그리고 생선구이는 정만 맛있었어요. 제주도에 있는 생선구이가 부산에 있는 식당에 생선을 먹어던보다 맛있었어요. 그 때는 즐겁게 먹었어요. 그 생선 이름이 모르겠어요. 근데 그생선 몸이는 길어요.